

대형 사이버서점의 위협

성동규

중앙대 교수 · 신문방송학

인터넷이 상용화하기 시작한 95년 이후 크게 관심을 끌었던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국내 진출이 드디어 가시화됐다. 3월 19일자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재벌 가운데 하나인 '삼성물산'은 아마존과 제휴해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들이 취급하는 책을 판매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책도 미국 아마존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란. 이럴 경우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건당 20달러 가량의 별도 우송료를 내지 않고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아마존 코리아' 설립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존은 이미 한국에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외국서적의 주문은 국내 대형서점이나 수입상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돈과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필자도 그동안 10여권의 책을 구입했다. 그런데 별도의 우송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웬지 편치 못하다. 왜 하필 재벌이 나서게 되었을까, 우리 출판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찝찝함이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번 삼성물산의 도서 유통업 참여는 그동안 재벌들이 벌여온 무분별한 문어발식 성장이데올로기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취급하는 서적수 440여만권, 160여개국 450만명의 고객 보유, 98년 매출액이 97년에 비해 312%나 늘어난 6억 1천만달러 등 아마존의 신화적 기록은 우리나라 재벌의 성장이데올로기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벌의 기업확장 전략과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벌은 그동안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에 편승하여 수십년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비만해진 몸통은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21세기형 기업으로 변신하지 못했고 IMF를 계기로 하나 둘씩 거꾸러지거나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들은 인터넷사업에 필요한 벤처형 경영마인드보다 그동안 익숙해온 현재완료형 사업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아마존과의 제휴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계기가 한국형 아마존을 개발하려고 몸부림쳐 왔던 국내 가상서점들을 일시에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존 대형서점들이 개설한 인터넷서점뿐만 아니라 50여 출판사들이 만든 '북파크', 최근에 개설된 '다빈치'나 '부꾸' 등은 최근 의욕적으로 새로운 마켓과 유통방법을 개척해 왔는데, 삼성의 아마존 운영으로 결정적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만약 북클럽 회원제를 기반으로 저가제를 통해 국내 출판유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베텔스만에 이어 삼성마저 인터넷에서 국내 서적의 유통업에 뛰어들었다면 지난해 대형도매상 부도로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내 출판계 전체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 것인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이 상용화된 후 가장 성공한 사이트인 '야후'나 '아마존'이 미국의 대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로 출발한 벤처기업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제공사업은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보다는 창의적이고 모험정신이 강한 자들만의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국내의 인터넷서점 운영 주체들뿐만 아니라 출판사,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 대안책이 필요하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출판유통시장은 머지않아 베텔스만, 아마존 등 외국자본이나 국내 재벌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

기획/ 전자출판물의 물결, 어디까지 왔나	2 실용화 머잖은 전자책의 미래 - 이기성 디스크책에서 한걸음 나아간 화면책 도래
집중취재	3 전자출판의 미래 가로막는 정보도둑
출판화제	4 디지털시대, 전자출판물의 현주소 지금까지 총 1131종 ... 다양한 형태로 시도
출판가	6 인터넷 쇼핑몰, 책시장의 또다른 가능성 클릭 한번으로 집까지 책 배달
서점가	8 사월의 봄에 읽을 만한 숲 이야기 책 9 책으로 풀어보는 '왕따' 문제
리뷰	10 책에서 얻은 과실 사회로 되돌린다 11 특특 튀는 새로운 판형의 책들 12 '전문화시대' 특별한 주제의 자료만 모은다 패션에서 족보 전문도서관까지
표지 이야기	14 근대서적 전문 '영월 책박물관'
특별기획	16 시간 지날수록 그윽한 모더니즘 고전 - 김성근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④ 외국문학편
만화	17 책과 오과장 - 박시백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낡은 천년과 새로운 천년에 대한 질문 - 주일우 '밀레니엄'을 주제로 한 책들
책감파 산책	19 마르코스 지음 《분노의 그림자》를 읽고 - 송기도
해외서점 탐방	20 프랑스의 '라도큐망타시옹 프랑세즈' - 최연구
마케팅 캠프	22 수익성 있는 틈새시장 찾기 - 한기호
쟁점	23 느닷없이 몰아친 '부가세' 태풍
서평	24 안동문화연구소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미학》 - 김현선 마스페로 《도교》 - 최진석 25 에반스 《역사학을 위한 변론》 - 조한욱 26 구영모 편 《생명의료윤리》 - 주동률 부케티츠 《사회생물학 논쟁》 - 최재천
이 책 그 사람	28 《평교사는 아름답다》 펴낸 최홍이씨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펴낸 전호태씨 29 《의학사의 숨은 이야기》 펴낸 예병일씨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펴낸 김 원씨
	30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7 출판계 소식
	48 독서퍼즐